

국내 핀테크 동향 및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한국경제포럼 세미나

2018년 9월 7일

목정환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Disclaimer: The views expressed are my own and not necessarily represent those of the Bank of Korea or any one in the Bank of Korea.

Contents



I. 핀테크 개요

II. 국내 핀테크 동향

III.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IV. 결 론



Contents



I. 핀테크 개요

II. 국내 핀테크 동향

III.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IV. 결 론





The diagram consists of two large circles, one light blue on the left and one light orange on the right, separated by a large gray plus sign. The word 'Finance' is written in the blue circle and 'Technology' is written in the orange circle. Both words have the first few letters in red and the rest in black. Below the circles, the text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is written in a brown font, with 'Technological' and 'Financial' having the first few letters in red.

Finance

Technology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핀테크 개요

새로운 사업모델, 업무, 생산, 서비스 등을 창출하여
금융시장,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 기반의 금융혁신

Technology enabled financial innovation that results in new business models, practices, products, and services with an associated material effect on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and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2015)

핀테크 개요

➤ 기술 발전에 의한 금융혁신은 새로운 현상이 아님

- 금융 거래를 정보의 형태로 기록
- 신용카드(1950s), ATM(1960s), 전자결제시스템(1980s), 인터넷 뱅킹(1990s)

➤ 최근의 금융혁신(=핀테크)가 특별한 이유

1. **주체** : 비금융기관이 혁신을 주도
2. **범위** : 금융서비스 모든 영역이 영향 받음
3. **속도** : 빠른 보급속도 +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기술 간 상호 작용

⇒ 기존 금융시스템에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가능성

Contents



I. 핀테크 개요

II. 국내 핀테크 동향

III.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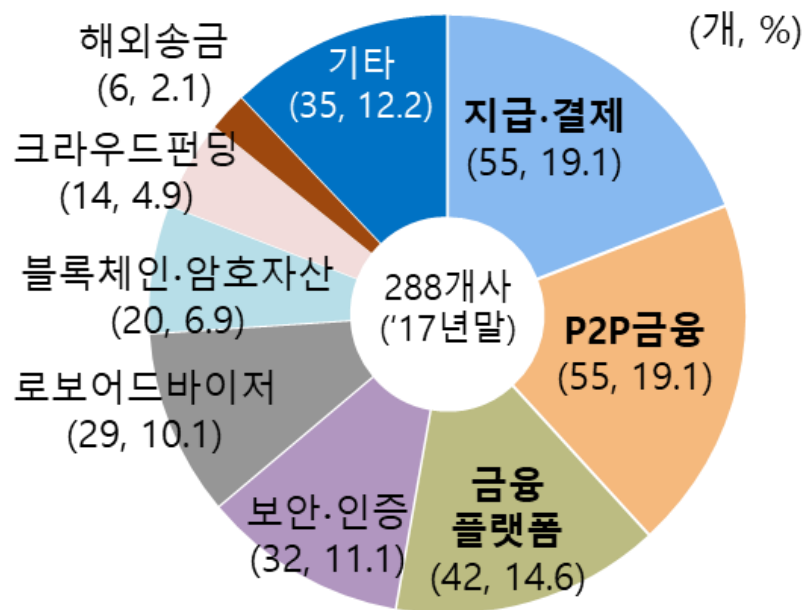
IV. 결 론

국내 핀테크 동향

- ✓ 우리나라는 금융인프라 구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빨랐고, 인터넷뱅킹 등 IT 기반 금융서비스도 널리 보급되어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핀테크 혁신이 다소 늦게 시작**
- ✓ **201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과 금융규제완화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핀테크 시장규모가 확대
- ✓ 초기에는 **지급·결제, P2P금융, 금융플랫폼** 분야에 투자가 집중
최근 들어서는 **블록체인, 보안·인증, 로보어드바이저**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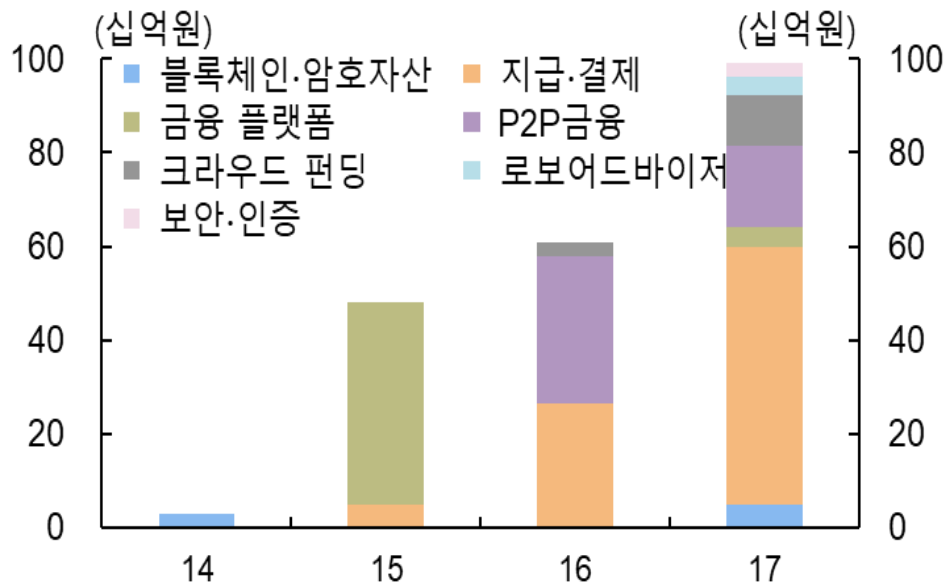
국내 핀테크 동향

국내 핀테크 기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8), 「2017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

국내 핀테크 관련 투자규모



주: 건당 3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기준
 자료: 플래텀(2018), 「2017 한국 스타트업 투자동향 보고서」

국내 핀테크 동향



1.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2.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
3. 기존 금융기관들의 핀테크 도입 및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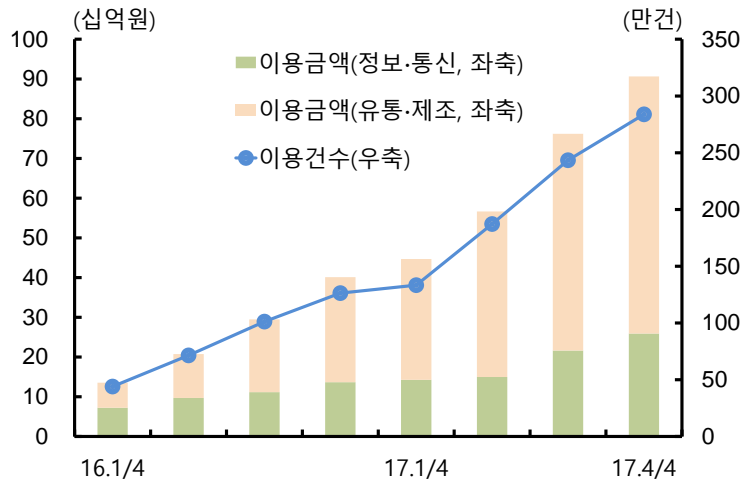
1.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 간편결제, 간편송금
- P2P 금융
- 클라우드 펀딩
- 암호화폐(암호자산), ICO
- 로보 어드바이저

간편결제, 간편송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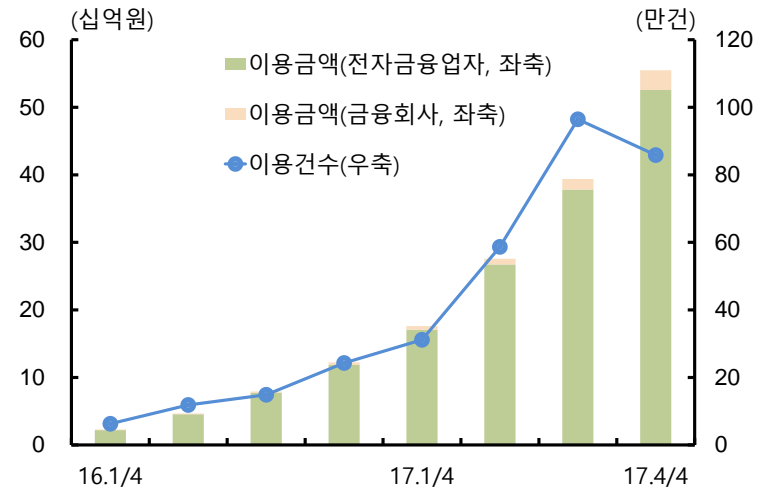
- ✓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2015년 3월)
- ✓ **대체인증수단(비밀번호, 지문 등)**을 이용해 신종 결제·송금 서비스를 제공
- ✓ **비금융기관(유통업체, 핀테크기업)** 제공 서비스가 우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 및 건수



자료: 한국은행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금액 및 건수



간편결제, 간편송금

  **PAYCO** **Paynow**

11PAY

간편·안전·혜택
UBpay

 **Kpay**

LG Pay

 **smile Pay**

SSG**PAY.**

L.pay

samsung pay

배민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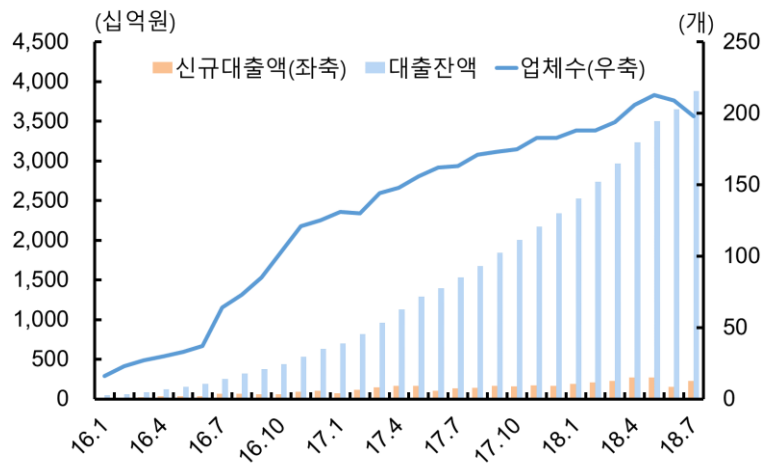
Toss

Bank Wallet

P2P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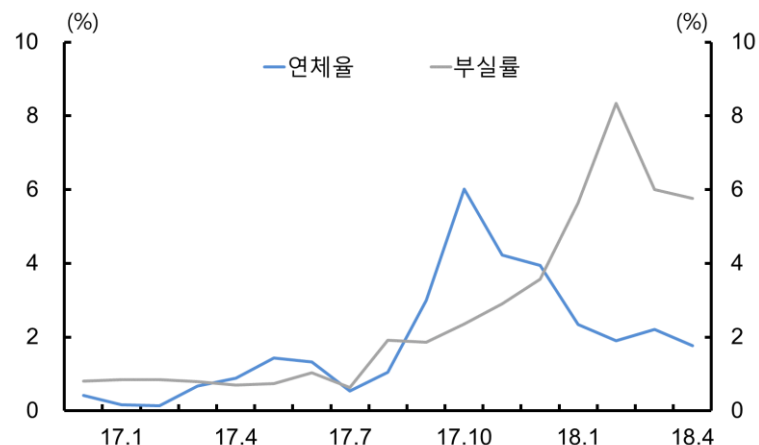
- ✓ 2018년 7월말 현재 **198개의 P2P 업체**가 영업 중 (금감원 등록업체 162개)
 - 누적 P2P 대출잔액 : 3조 9,793억원, 2018년 7월 중 신규대출취급액 : 2,259억원
 - 신용대출 (비중 14.29%, 수익률 13.85%), 담보대출 (비중 85.71%, 수익률 14.20%)
- ✓ 최근 들어 **연체율과 부실률이 증가하면서**, 업체의 **사기 및 파산 사례가 증가**

P2P 업체 수 및 대출 잔액 추이



자료: 클라우드연구소

P2P 대출 연체율 및 부실률



자료: 한국P2P금융협회

8PERCENT



FUNDA

LENDIT™

FUN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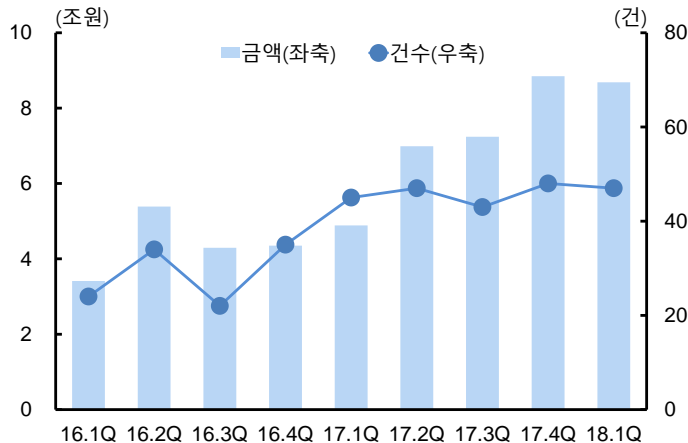
Villy



크라우드펀딩

- ✓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
- ✓ 2017년에만 183건 펀딩 성공, 총 278억원의 자금이 조달
- ✓ 최근 들어 투자자 기반 확충, 기업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대상업종 및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점진적인 규제 완화가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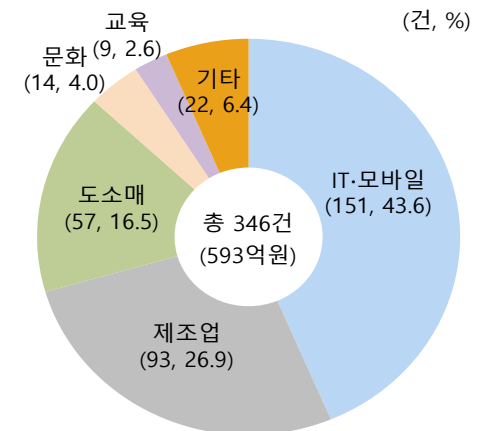
크라우드펀딩 성공 건수 및 투자금액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

업종별 크라우드펀딩 현황

(2016.1~2018.3)



암호자산, ICO

- ✓ 한국의 암호자산 시장은 지난 1년간ダイナミック한 변화를 겪음
 - 2017년 비트코인의 원화거래 비중 세계 3위, 일일 최대거래량 미화 39억불(약 4.3조원)
 - 암호자산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프리미엄 현상**이 상당기간 발생
- ✓ 거래실명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의 정책 도입 이후 과열현상이 진정됨

국내 비트코인 가격 및 거래대금



주: '18.1.16까지 빗썸,코인원,코빗 기준, '18.1.17부터 업비트 추가
자료: Coinass.com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



자료: Coinmarketcap.com

- ✓ 2017년 5월 BosCoin이 국내에서 최초로 ICO에 성공 (135억 상당의 비트코인 조달)
- ✓ 정부는 국내에서의 모든 유형의 ICO 금지 (2017년 9월)
- ✓ 이후 일부 기업들은 ICO에 우호적인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 해외 법인 또는 재단을 설립하여 ICO를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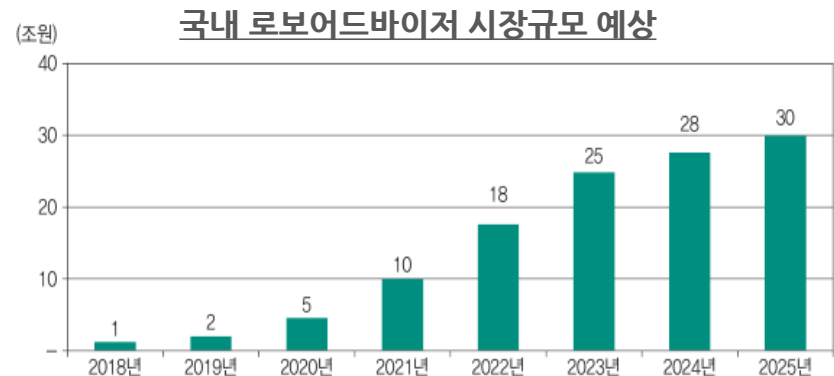
국내 사업자의 해외 ICO 추진 사례

ICO 사업자	시 기	조달 금액	암호자산명	국가
블록체인OS	17.5월	약 157억원	보스코인(BOS)	스위스
더루프	17.9월	약 460억원	아이콘(ICX)	스위스
글로스퍼	17.9월	약 148억원	하이콘(HYC)	스위스
BERITH	17.9월	약 30억원	Berith Coin(BRT)	한 국
블록뱅크	17.10월	약 120억원	링커코인(LNC)	스위스
메디블록	17.11월	약 100억원	메디블록(MED)	지브롤터
리얼리티리플렉션	18.1월	약 54억원	모스코인(MOC)	에스토니아

자료: ICOwatchlist.com 등

로보어드바이저

- ✓ 2016년에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 자문·일임 업무가 허용됨
-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용
 - 알고리즘의 유효성, 시스템 안정성, 보안성 등을 점검
 - 총 참여업체(알고리즘) 54개사(64개) 중 39개사(45개)가 통과되어 운용 중
 - 현재 3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가 진행
- ✓ 최근 들어 영상통화,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투자일임이 허용됨
- ✓ 현재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



자료: KEB하나은행 하이로보센터

국내 핀테크 동향



1.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 2.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
3. 기존 금융기관들의 핀테크 도입 및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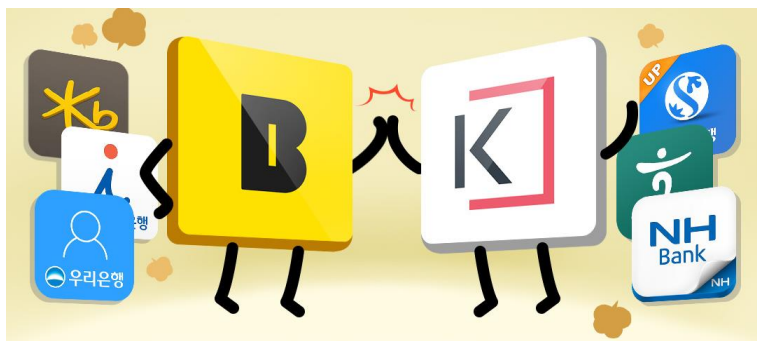
인터넷전문은행

✓ 2017년 K뱅크, 카카오뱅크가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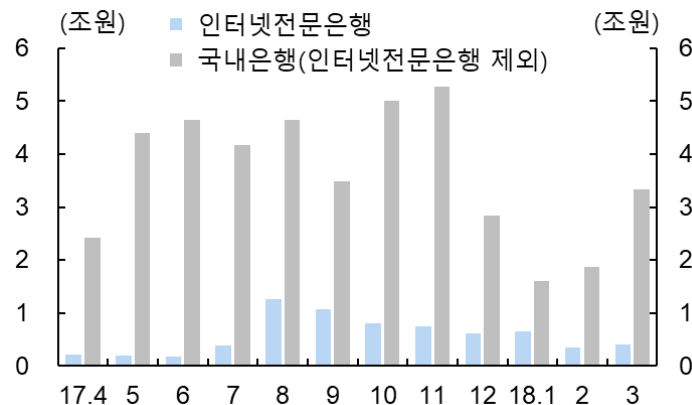
-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 및 **금융산업 내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인가

✓ 비대면 채널의 편리성, 저비용 구조에 따른 **금리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급성장

- 여신 및 수신 점유율은 일반은행 대비 각각 0.7%, 0.8%에 불과 (2018년 3월말 잔액기준)
- 가계대출 점유율은 영업개시 이후 1년 간 일반은행 전체 가계대출 증가규모의 17.3%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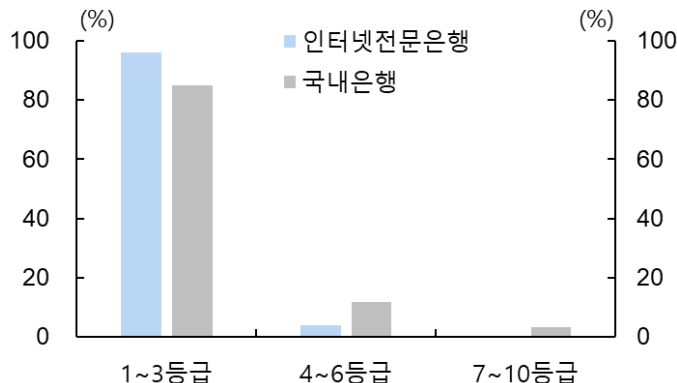


자료: 국내은행 업무보고서

인터넷전문은행

- ✓ 아직까지는 **고신용·고소득자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어,
중신용자 대출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아직 영업초기 단계인 만큼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정보 축적이 부족하고,
독자적인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 구축이 미흡
-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 중

차주 신용등급별 비중



주: '18.3월말 가계신용대출 잔액 기준
자료: NICE 평가정보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해야	VS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유지해야
ICT 기업주주가 자본을 확보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ICT 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을 자신들의 사금고처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기존 금융회사들이 주도하는 꼴이 되었다.		즉 은행의 대주주인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해당 기업이 부실해지면 그것이 은행의 부실과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인터넷 은행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2013년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 회사채와 어음을 발행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던 전례 있다.

출처 : <http://3mineconomy.tistory.com/69>

국내 핀테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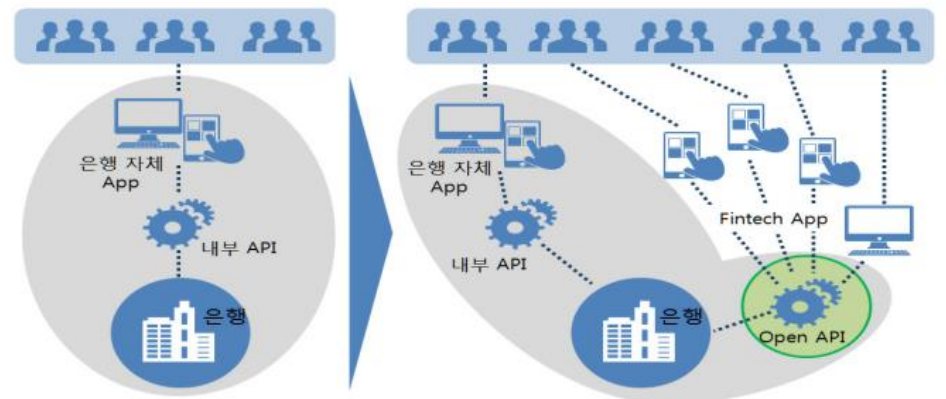


1.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2.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
- 3. 기존 금융기관들의 핀테크 도입 및 대응**

사용자 환경 개선

- ✓ 향상된 UX/UI를 제공하는 자체 모바일 앱 개발하여 편리성을 강화
- ✓ Open API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채널 선택권을 확대
 - 개별 은행만 보유하던 고객정보를 핀테크 기업에도 공개
 -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금융결제원 운영, 2016년 출시)에서는 15개 은행이 5개 API(계좌 잔액, 거래내역, 입금, 출금, 계좌실명 조회)를 제공 중(2017년 말 기준), 개별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으로 Open API를 구축하거나 검토 중

Open API를 통한 온라인 은행거래 채널의 변화



출처: "국내외 은행들의 핀테크 도입사례 분석", 산업은행 (2016)

비대면 채널 확대

- ✓ 인터넷 전문은행이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주도하기 시작
- ✓ 금융기관들도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전용상품 판매를 확대**
 - 비대면 거래에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부여
 - 계좌조회 서비스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대화형 banking,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
 - 상품안내, 보험상담 등과 같은 고객응대 업무는 챗봇(chatbot)을 통한 비대면 채널로 처리

서비스 및 운영체제 개선

✓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핀테크 기술을 적극 도입

- 은행 : 비금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용평가모형을 개선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 개발
- 증권사 : 로보어드바이저 도입
- 보험사 : 기존 보험계약인수 기능을 IT 기술로 대체하는 보험계약자동심사시스템 도입,
IoT 기술 기반의 운전정보연계 자동차보험 출시
- 카드사 :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 도입

핀테크 전담기구 설립

- ✓ 금융기관 내에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
 - 국내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에서는 총 7개의 핀테크 지원센터를 운영 중 (2018.1월말)
- ✓ 핀테크 기업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기술의 공동개발 및 연구** 등을 지원
-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터(incubator) 역할**을 수행
 - 핀테크 기업들이 규모가 작은 데다가 사업모델 관련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멘토링 및 컨설팅 등을 제공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신규 서비스가 실제로 상용화되도록 지원

KB Innovation **HUB**




신한 FUTURE'S LAB



 Wibee Fintech Lab
위비핀테크 Lab

Contents



I. 핀테크 개요

II. 국내 핀테크 동향

III.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IV. 결 론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1.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관련 리스크
2. 기존 금융기관의 핀테크 도입에 따른 리스크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 ✓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아직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기관과의 연계성도 낮아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 본인인증에 사용되는 바이오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이 제정되어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감소
- P2P 금융 : 최근 사기 및 파산사례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 규모가 작고 기존 금융기관과 연계성도 낮아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 그러나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함
- 크라우드펀딩 : 자본시장법에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P2P 금융에 비해 정보비대칭에서 유발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임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 ✓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는 아직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기관과의 연계성도 낮아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암호자산 및 ICO : 국내 ICO가 금지되어 있으며 암호자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익스포저도 미약하여, 현 시점에서 ICO 및 암호자산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로보어드바이저 : 현재로서는 시장규모가 매우 작아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나, 향후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 거래 동조성이 강화되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 ✓ 기존 금융기관의 경우 핀테크 활용이 기존 서비스 및 운용체계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핀테크 혁신이 금융기관의 리스크 추구행태를 강화하여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다만, 향후 금융기관들과 핀테크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핀테크 도입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사이버 리스크, 제3기관 리스크, 신용 리스크 등의 발생 가능성

Contents



I. 핀테크 개요

II. 국내 핀테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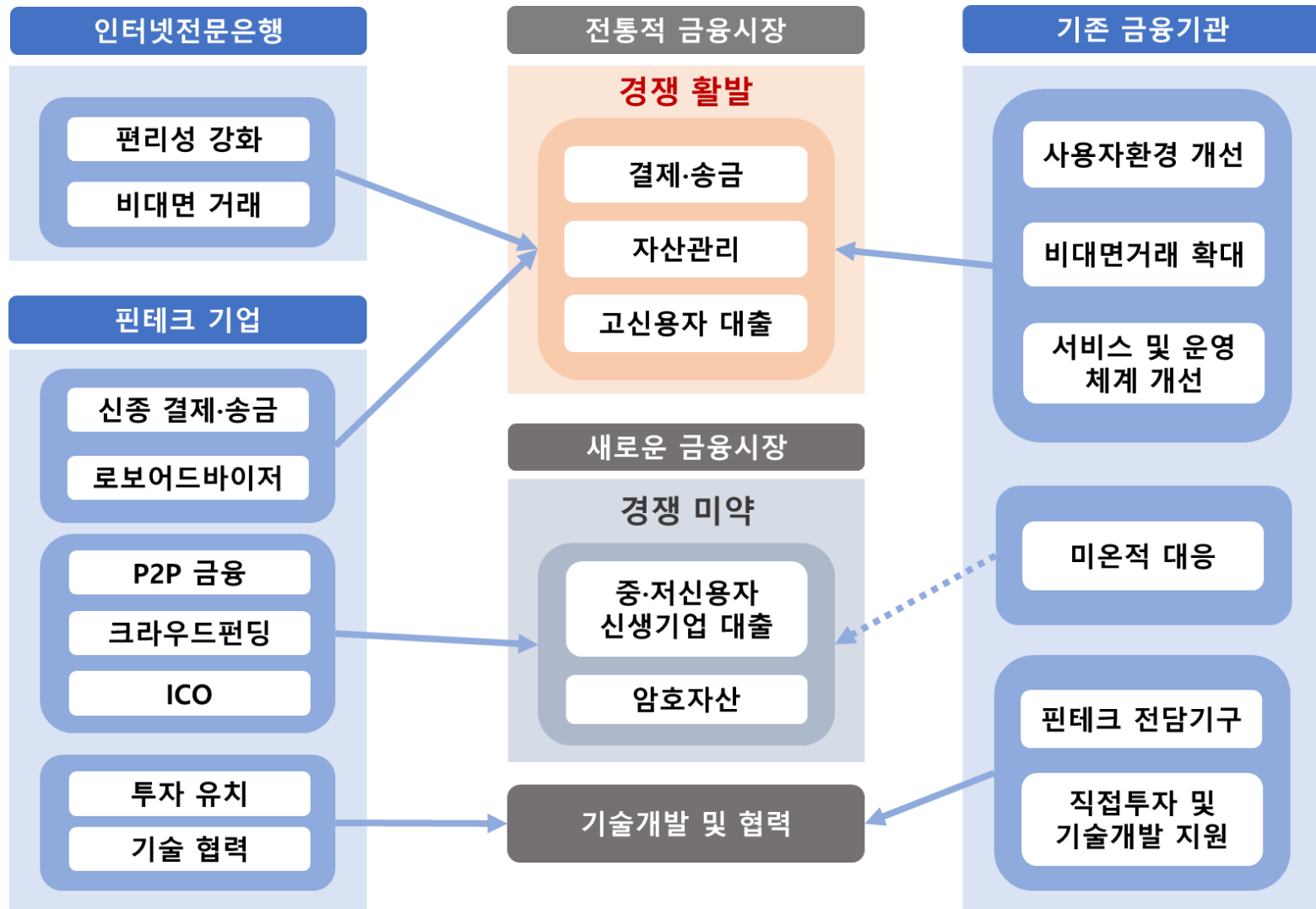
III.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IV. 결 론

✓ 핀테크 발전은 금융서비스 발전에 큰 기회를 제공

- 접근성 제고 :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사용
- 효율성 향상 : 낮은 비용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
- 탈집중화, 탈중개화 : 기존의 중앙집권적 금융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

결론



결론

- ✓ 현 시점에서 핀테크 혁신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 핀테크 도입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날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
- ✓ 핀테크 업체가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용이하게 신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감사합니다!

